

우리 서점은 '양지바른 무덤' 인가

정과리

충남대 교수·불문학

어느 큰 서점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IMF시대 이후 매장에 손님은 늘어났는데, 매상은 거꾸로 줄었다고 한다. 방문객이 너무 많아 발을 디디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니, 이른바 정리 해고의 한과에 쫓긴 사람들이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집단 대이동을 하는 광경이 눈앞에 선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점이 아무리 측근해도 서점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듯싶다.

아마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상투적인 명제는 이 상황에서는 무색한 듯이 보인다. 심지어 책이 생존을 위한 자산이 되지도 못하는 듯싶다. 불황기에 오히려 독서인구가 늘어났다는 외국의 사례는 책이 생활의 촉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증거로 읽힐 만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아닌 모양이다. 우리의 서점은 그저 '양지바른 무덤' 같아 보인다. 지금 사람들은 문득 멈추어버린 생과 미처 건너지 못한 저 세상 사이에 놓인 간이역으로 몰려들어 하릴없이 서성이며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독서인구의 계층간 불균형이 첫번째 원인이 될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독서인구는 80년대까지는 대학생, 미혼 직장여성이 주를 이뤘고, 소비사회가 급격하게 팽창한 90년대에는 주부와 초·중등학생이 거기에 추가되었다고 나는 대체로 짐작하고 있다. 내 짐작이 맞다면, 그 어느 때에도 기혼의 직장인은 독서의 사회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다. 초·특급 경제성장에 매진하느라고 여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든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실무를 통해서 배워온 탁월한 실천감각을 체득하고 있어서 책이 불필요했기 때문인지,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마당에 찾아간 곳이 서점이라 한들 책이 안구를 뚫고 뇌리까지 들어올 리가 만무할 것이다.

헌데 이런 사정은 한국이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곳임을 감안하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거의 모든 시간을 책에다 바쳐온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책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요컨대 소년과 성인 사이에 문화적 단절이 있다는 얘긴데, 결국 그것은 한국의 엉망진창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낭비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실용적' 도서가 빈약하다는 게 또한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한국의 '잘 나가는' 책들은 회한하게도 가슴을 에고 눈물을 쥐어짜게 만드는 감상문들 일색이다. 정통 문학이건 통속 소설이건 대부분이 입지전이거나 비련기거나 아니면, '고향 찾아 삼만리' 식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감성대만을 즐기치게 두드리고, 뇌 대신 누선(淚腺)을 열심히 자극하는 책들이 독자의 무의식적 욕망과 출판사의 단기적 계산의 합작을 통해 집중적으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이른바 실용적 도서들은 외서를 배긴 흔적이 역력할 정도로 외국어를 남발할 뿐만 아니라,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게 상당수다. 그러니, 책에서 구할 게 사실상 없다. 이 편식문화와 문화 결핍이 직장인들을 책으로부터 등돌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서점 풍경은 분명 이상의 원인이 실타래처럼 엉킨 결과로 생겨났으리라. 이를 한꺼번에 치유할 방법은 물론 없으며, 병인들을 세세히 따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의식있는 출판문화인들에게 지워진 짐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양이다. 쓸쓸한 일이다. ♦

초점	2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미술저작권 문제 한국적 상황 고려한 미술 저작권 기준 마련돼야
집중취재	4	서점에 침투한 위험한 '해킹도서' 들 버젓이 해킹 기술 소개...심의기준, 관련법규 시급
기획취재	6	국내 출판사들, 해외진출 전망 '맑음' 중국·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일곱	8	한국출판금고 이사장직 퇴임하는 정진숙씨·신임 이사장 김낙준씨
긴급진단	9	국내 최대 단행본 도매상 보문당 끝내 부도 - 한기호
출판취재	10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변혁의 길
	11	반란과 전쟁으로 읽는 한국의 역사
	12	'깊이'와 '재미' 두루 갖춘 테마 소설들
	13	척박한 영토에 서정의 씨 뿌리는 시집 몇권
이 책을 말한다	14	훗타 요시에 《고아》(전4권)를 읽고 - 이석우
화제작 주변	15	임철우 《봄날》을 읽고 - 김외곤
신간읽기	16	위에 난 지음 《진시황릉》
책이 있는 풍경을 찾아서	17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내 '북 앤 리더스'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이득한 '중세'의 꿈과 상상을 찾아서 - 최애리
만화	19	책과 오대리 - 박시백
가상대담	20	'동아시아 근대의 고뇌' 루원과의 대화 - 전형준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2	한국인의 '원형' 찾아 학문뱃길 삼십년 - 김열규
책갈피 산책	23	어빙 스톤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를 읽고 - 조용진
해외서점 탐방	24	회원제 서점 '프랑스 루와지르'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5	컴퓨터 서적의 최신정보 사이트 - 이은택
서평	26	한계전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 최동호 리우샤오간 《장자철학》 - 정세근
	27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 박낙규 폴 홀스 《현대 정신분석과 심리극》 - 김정일
	28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 이수훈 송호근 《또하나의 기적을 위한 짧은 시련》 - 김영훈
	29	김홍철 《국경론》 - 류재갑 정재철 엮음 《문화연구이론》 - 김성기
이 책 그 사람	30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펄먼 최종태씨 《행복을 만드는 짜장면》 펄먼 박권용씨
	31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 펄먼 박상이씨
	32	새 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⑥